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영 근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기분장애에서 표출되는
우울증의 시각화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2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김 지 수

기분장애에서 표출되는
우울증의 시각화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박 영 근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김 지 수

인 준 서

김지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9년 석사학위 청구 전 <푸른, 감정에 잠식되다>에 전시된 본인 작품 중심으로 기분장애에서 표출되는 우울증의 작품을 조형적 전개 과정으로 연구한 것이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과 일상의 공간 속에서 다양한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 속에서 우울한 감정과 차가운 정서의 섞임은 물속에 잉크를 퍼트리듯이 아주 단순하고 찰나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순간의 혼탁을 견어내지 못하여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기분장애를 앓게 되는 것이다. 기분장애란, 1)기분 조절이 어렵고 비정상적인 기분이 장시간 지속되는 장애를 말한다.

이는 마치 절망감조차 느껴지지 않는 새카만 검은색이라기보다 탈출구가 보일 듯 말 듯 짙은 푸른빛이 도는 심연의 늪에 발을 들여놓아 숨 쉴 수 없는 기분과 같다. 이러한 기분장애에 대한 미시적 경험을 조형적 작품으로 표출한다.

본인은 위 감정과 정서에 주목하여 작품에 푸른색을 중점으로 판화와 선드로잉(line drawing)의 회화적 요소를 함께 이용하였다. 판화의 프레스기 압력으로 인쇄된 작품은 마치 순간의 감정을 찍어내듯 명쾌하고 분명하게 나오지만, 각기 다른 우울한 감정의 깊이감이 우러나오기에는 재료의 제한과 작업의 공간적 한계를 느꼈다.

따라서 본인은 어디에서든 아주 얇은 종이를 이용해 그날의 감정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선드로잉을 하여 종이의 어느 부분은 완전히 겹치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일부만 겹침을 허용하여 감정의 깊이감을 드러내고자 하

1)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국립특수교육원(2009)

였다. 평면작품에서의 겹침의 허용은 본인만의 감정을 담은 것으로 일상 속 우울한 감정과 차가운 정서의 어우러짐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나타냈다.

본인은 일상 속에서 기분장애에 대하여 치유와 극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담담히 받아들이고 직면하고자 하며, 누구나 정도의 차이를 가질 뿐 공통된 기분장애를 앓는 우리는 생활 속에서의 공감과 유대감을 느끼도록 유도한다.

즉 기분장애의 감정과 정서를 마주하여 본인의 선드로잉으로 표출하며 우울증의 시각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인지적 측면	3
1) 기분장애의 심리분석	3
2) 기분장애에서 표출되는 작품 비교	6
2. 조형적 측면	17
1) 간접성과 직접성의 개입을 통한 상처표현	17
2) 선드로잉을 통한 내면의 깊이 표현	20
3) 푸른색에 대한 감정의 시각화	25
3. 작품 분석	29
III. 결론	39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록

- [작품 1] <Self-portrait>, 65.1×53.0cm, print/embroidery on canvas, 2014
- [작품 2] <Self-portrait>, 145×112.1cm, oil on canvas, 2016
- [작품 3] <Self-portrait>, 70Ⅱ, print/embroidery on canvas, 2016
- [작품 4] <푸른, 감정에 잠식되다>, 788×1090cm, pen on paper, 2018
- [작품 5] <푸른, 감정에 잠식되다>, 30×30cm, pen on paper, 2019
- [작품 6] <푸른, 감정에 잠식되다>, 30×30cm, etching, 2019
- [작품 7] <Self-portrait>, 70Ⅱ, print/embroidery on canvas, 2016
- [작품 8] <Self-portrait>, 116.8×91cm, lithograph, 2017
- [작품 9] <푸른, 감정에 잠식되다>, 788×1090cm, pen on paper, 2018
- [작품 10] <푸른, 감정에 잠식되다>, 116.8×91cm, engraving, 2018
- [작품 11] <푸른, 감정에 잠식되다>, 116.8×91cm, digital image/ink-jet
print, 2019
- [작품 12] <푸른, 감정에 잠식되다>, 116.8×91cm, print ink on canvas, 2019

참 고 도 판

[참고 도판 1] <F(faith)>, 16×12 inches, embroidered photography,
Haines Gallery - San Francisco, CA, 2015

[참고 도판 2] <Untitled>, 132×98cm, oil on canvas, 2004

[참고 도판 3] 작품 3의 부분

[참고 도판 4] <Pablo Picasso>, 81×60cm, oil on canvas,
The Picasso museum in Barcelona, 1901

[참고 도판 5] <푸른, 감정에 잠식되다> 展 습작의 일부, 2019

I. 서 론

일정한 생활 패턴은 본인에게 안정적인 감정을 가져다주었다. 큰 변화가 없는 일상생활은 본인이 통제하고 조절 가능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적 생활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부터 조금씩 깨질 때 본인은 심리적으로 불안감과 우울감이 쌓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기분장애 중 우울한 감정과 차가운 정서가 스며들어 자신조차 출발점을 알아채기는 어렵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감과의 거리가 멀어짐의 깨달음은 이미 탈출구 없는 늪 한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본인은 매 순간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울한 감정을 떨쳐버리려 무의식적으로 노력하지만 누적된 감정의 깊이감을 매듭짓기에는 한계를 느낀다. 회복의 결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장애를 앓고 있다는 인정을 통해 인지적 측면에 집중하여 평면에서 감정의 깊이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복잡한 감정을 분명한 형태로 형상화하기는 어려워 종이 위 선드로잉으로 형상이 불분명하게, 마치 낙서처럼 구성하고자 한다. 종지와 필기도구는 휴대성이 용이하여 어디서나 작품 제작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에 적합하다. 자료를 토대로 본인은 기분장애의 인식과 깊이감을 표현하기 위해 판화기법을 활용하였다. 전통적인 판화의 기법을 이용하고 이를 재현하기 위한 회화적 구성연구를 통해 본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조형적 실험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기분장애의 심리분석을 작품 속 판화기법의 적용방법으로 서술하고자 하고, 작품에 대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기분장애의 인지적 측면을 심리분석의 개념과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서술하고자 하고 현대미술사에서 기분장애가 내포되어 표출된 작품들도 함

게 설명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조형적인 측면에 관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판화기법의 결과물에 선드로잉을 추가한 결과물과 관련된 푸른색의 감정적 시각화를 고찰하고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앞선 과정의 작품을 응용한 디지털 매체 작업도 설명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본인의 작품에 각기 다른 매체를 어떻게 조합하였는지에 관한 작업 방법, 재료, 기법 등을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는 본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이 생활 속에서의 감정 표출 방법을 찾고, 공감과 유대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방법을 모색한다.

II. 본 론

1. 인지적 측면

1) 기분장애의 심리분석

본인은 안정감에 의지하고 있는 2)외부상황에서 환경적 상실이라던가 배척, 혹은 거부의 느낌, 소외가 감정과 정서에 스며들어올 때 기분장애를 앓게 됨을 알 수 있다. 기분장애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스스로에게 다가와 불안과 위협이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이 타당성이 명시되지 않으면 불안한 감정들이 온몸에 응집되어 우울증에 잠식된다고 말한다.

본인은 연구 기간 동안 아침에 기상하여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근무하며, 나머지 여가에 운동하고 취침한다. 어느 하나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적인 삶의 반복이다. 다만 이러한 반복에서 오는 안정감에는 조건이 붙는데 반드시 계획된 일상이어야 한다. 정해진 기상 시간인 8시 15분, 3번째 울리는 알람에 눈을 뜨면 만족감을 느낀다. 매일 가는 카페에 가서 생각해둔 음료를 마시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학업이나 업무를 하는 도중, 의도치 않게 계획이 틀어지거나 시간 배분에 차질이 생기면 불안함과 강박감이 견잡을 수 없이 커진다. 차례로 진행되어야 할 일정이 예상과 어긋나면 하루가 망가지는 기분을 느끼거나 남아있는 일정마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은 느낌에 불안감을 느낀다. 틀어진 시간에서 오는 정

2) 이재창, 정영윤, 구본권, 손진훈, 김정기, 박승호 지음 「인간이해를 위한 심리학」, 문음사, p432

신적인 스트레스가 마치 머리카락들이 바닥에 떨어져 지저분하게 뭉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종이에 선으로 뿔뿔이 뭉쳐 그려 시각화시킨다. 어디서부터 차질이 생겨 왜 그런 불안한 감정을 느꼈는지, 아무 일 아닌 듯 치부해버려도 되는데 왜 본인은 틀어진 시간에 머물러 불안한 감정에 계속 고여 있어야 하는지 시각적으로 분석해본다. 이러한 시각적 표현은 불안정한 감정인식을 형태화된 자료를 수집하는데 매우 용이하고, 객관화되어 기분장애의 개념에 타당성을 대입한다.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자신에게 3)위협이 되거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스스로 변해버린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또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히면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불안장애라 정의한다.

본인은 불안한 감정의 응집되고 뒤엉키는 성질이 정신으로 침식되지 않도록 신체적으로 상반되는 행동을 한다. 이는 자신이 조절 가능한 통제 범위에서 강박적으로 사물을 가지런히 줄지어 늘어서게 하거나 일정한 순서로 배열한다. 정해진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했다면 그 상황에 연관된 침구류를 반듯하게 정리하고, 근무시간이나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상황이라면 필기도구나 책상 위 물건을 흐트러짐 없이 청소하고 가지런히 놓는다. 이러한 통제 가능한 행동의 노력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나 불안한 감정, 압박으로부터의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안한 감정의 응집과 뒤엉킴의 크기 가늠이 강박적 행동을 압도하여 우울증과 연결된다. 이는 정신적 불안감, 우울증이 신체적 경계선을 침범하고, 의지로도 억제하지 못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방해되며 심한 고통을 받는다.

정신의학과에서는 4)모든 사람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실패 등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우울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되거나 망각되어 우울 상태로부터 회복되는데 이때 회복되지

3) 이재창, 정영윤, 구본권, 손진훈, 김정기, 박승호 지음, 위의 책, p432

4) 이재창, 정영윤, 구본권, 손진훈, 김정기, 박승호 지음, 위의 책, p435

못하고 우울한 감정이 심해져서 절망감에 빠져 자아의 파괴상태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간주한다. 본인은 이에 대하여 연구 기간 동안 겪어온 경험으로 보건대 일상생활에서 오는 우울함, 불안감, 부정적 감정 등은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불안의 근원으로 우울증은 일상생활에 필연적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기분장애는 우울증적 경향이 있는 사람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실, 배척, 거부의 느낌을 받았을 때 그들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두려워 그들에 대한 적개심을 억압하고 원인을 내부로 돌린다. 그리하여 자신을 극도로 자책하여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하다고 여기며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게 된다고 본다.

인지적 시각에서는 자기비하적 관점에서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실패를 예상하며, 자신을 부적절하다고 자책하고 비난하는 왜곡된 사고가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본다.

2) 기분장애에서 표출되는 작품 비교

우리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스트레스 자극을 받거나 불안한 감정을 겪을 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 행동을 한다. 이는 스트레스에 대해 여러 반응을 보인다는 것으로 불안, 분노 등의 감정적 반응뿐 아니라 이런 반응을 느낄 때 일련의 생리적 반응들도 수반하게 된다. 본인은 이에 관련된 생리적 반응은 손등의 국소 부분에 아토피가 발병하는데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면 손 전체에 퍼져나간다. 이 손으로 우울감, 불안함을 선드로잉하는 것을 인식될 때면 내면의 감정이 신체적으로 번져가는 것을 느낀다. 한편으로는 본인이 더이상 우울감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감정의 제어 신호가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반응 외 심리적 반응은 아래와 같다.

감정적 반응은 심리적 반응 중 대표적인 것으로써 첫째, 불안 또는 공포를 들 수 있다. 즉 성취에 대한 압력,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은 불안이나 더 나아가 공포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불확실성의 불안은 본인에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감정의 안정과 성취를 느낄 수 있지만, 상대방의 외면이나 인연이 끊기게 된다면 그 이유를 본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며 일상생활에 소극적이고, 불안정한 감정을 유지한다.

둘째, 스트레스는 냉담·무관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고, 또는 더 나아가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한 우울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의 불안, 죄책감 등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만 집중하고, 이를 위해 문제해결 없이 문제 상황을 현실 왜곡적으로 재해석하려는 것이다. 이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업무가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는 것, 작업의 시작만 있고 완성이 없는

5) 이재창, 정영윤, 구본권, 손진훈, 김정기, 박승호 지음, 위의 책, p399

것, 머릿속 아이디어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수록 무기력함이 동반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결과를 매듭짓지 못하는 이유만 찾게 되고,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우울한 감정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방어기제, 보호 등보다는 우울한 감정 자체를 인지적 측면으로 본다. 이를 작품 속에서도 표현한다.



[작품 1] <Self-portrait>, 65.1×53.0cm, print/embroidery on canvas, 2014

[작품 1]에서 표현한 정면으로 마주한 시선은 상처 입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마주하는 결과물이다. 흑백사진 속 본인은 우울증과 불안한 감정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 듯 입을 조용히 다물고 있다. 이를 직시하는 매체, 언급하는 소통구는 오직 눈이며 본인만이 아닌 일상생활 속 모두의 공감을 형성한다. 푸른색 자수로 표현된 기하학적 패턴은 눈 주변에 배치하여 집중되도록 했다. 이는 색만으로도 흑백과 대조되는 색상으로 상처 입은 인물사진의 감정을 치유하는 역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치유와 동시에 방사형으로 우울증과 불안한 감정 등이 퍼져나가는 의미이기도 하다.



[참고 도판 1] <F(faith)>, 16×12 inches,
embroidered photography, Haines Gallery - San Francisco, CA, 2015

많은 작가가 기분장애, 우울증을 작품에서 표현해왔다. 그중 마우리치오 안제리(Maurizio Anzeri, 1969~)은 기하학적인 패턴의 자수를 인물 사진 위에 자수를 놓음으로써 평면 구성 위 자수에서 오는 리듬감, 긴장감이 회화적 구성요소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F(faith)>이

다.

마우리치오 안제리(Maurizio Anzeri)는 오랜 시간 동안 베틀시장에서 흑백사진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졌는데 그 흑백사진 속 인물에 화려한 색과 기하학적인 패턴을 자수를 놓음으로써 평면에 새로운 입체로 만들어 'Photo-sculpture'라는 용어를 만들어낸다. 이는 평면 위의 기하학적인 패턴이 마치 조각을 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멈춰있는 시간에 공간을 나타내는 듯한 묘한 느낌을 준다. 마우리치오 안제리의 작품은 무도회장의 가면처럼 눈을 제외하고 뒤덮는 모습의 특징을 가진다. 이로 인해 오히려 신원의 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 특정 인물의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을 표출해 놓는 것처럼 느껴진다. 선명도가 떨어지는 오래된 흑백사진의 눈동자는 오히려 자수의 패턴으로 인해 더욱 빛나고 선명하게 느껴진다.

그는 “나는 친밀한 것과 그 밖의 세계 간의 관계에 관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한다. 각기 다른 공간과 시간에 찍힌 사진들, 그 사진 속 인물들을 단편적으로 멈춘 시간과 공간을 틀 한가운데에 묶어놓고 내면적 심리를 탐구하여 자수의 기하학적 패턴으로 방향성과 색감을 나타낸다. 정면을 바라보았던 인물의 눈동자는 작품이 가정 먼저 도달하는 부분으로, 관찰자로 하여 인물의 내적 심리와 감정을 직면하게끔 만들어 주는 요소이다. 인물의 눈동자를 중심으로 둘러싼 자수의 반복적이고 기하학적인 패턴은 작품의 전체적인 어두운 색감과 인물의 형태와 반대되는 요소이다. 아주 정교하고 의상처럼 장식적이지만 인물에게 초점 맞춰지는 방향과 은은하게 드러나는 인물의 표정을 통해 불편하고 불안한 감정이 오버레이 된다. 이 밖에도 그의 작품들에서는 인물의 시선이 어디에 향하든 자수의 방향과 색감으로 인해 심리적 집중의 특징을 보인다.

마우리치오 안제리는 완전한 인물 사진을 기본으로 자수를 통해 내포된 감정을 시각화하여 표현했다면, 본인의 작품은 캔버스 위에 겹 미디어를 두

털게 바르고 완전한 인물사진을 캔버스와 맞닿게 올려놓고 눌러 붙인다. 겔 미디어가 어느 정도 마르면 붙어있던 인물 사진을 떼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거칠게 사진이 떨어지게 된다. 이 손상된 부분에서는 인물의 불안한 감정과 우울한 감정이 상처처럼 시각적으로 보이게 되고 그 위에 기하학적인 패턴의 온전하게 치유되지 않는 의미의 푸른색 자수로 상처를 꿰매는 것처럼 표현한다. 반면에 본인의 작품은 마우리치오 안제리의 절제된 인물의 표현이 자수의 폭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절제되지 않은 모든 것이 불안전성을 처음부터 보여준다. 본인에게는 정면으로 마주한 시선에서부터 절제된 필요가 없고 숨길 필요가 없는 불안하고 상처 입은 감정을 직관적으로 마주하는 결과물이다.

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겪어 외부적 환경에 의해 고립되고, 내면적 심리가 거칠게 왜곡되어 작품으로 표현한 작가 지슬라브 백진스키(Zdzislaw Beksinski, 1929-2005) 또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작품을 그려냈다. 그는 작품은 관람자에게 불안한 감정과 스산하고 차가운 느낌을 가장 먼저 느끼게 한다.



[참고 도판 2] <Untitled>, 132×98cm, 2004

그는 대부분 작품에는 시간과 공간이 드러나지 않는, 오직 순수한 내면의 세계만이 나타난다. 그는 1929년 2월 29일 폴란드의 샤녹 출생으로 이 시기에 2차 세계대전을 겪는 혼란스러운 과도기였다. 이 암울한 시대의 전쟁이란 외부적 상황에 노출되어 절망감과 상실감을 극도로 표현한다. 그의 작품

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시간과 공간에 그려냄으로써 초현실주의인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적 환경에서 생성된 사고의 시각과 감정은 작품세계 형성에 반영된 것으로 표현적 사실주의에 속해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작품 속 안에는 흘러가는 시간이 느껴지지 않건만, 불안한 감정의 자아들이 한데 뭉쳐 허상의 공간 안에서 힘겹게 한 발씩 옮기는 듯하다. 스산해 보이는 안개 혹은 이 우울한 감정이 오래되었다는 듯 보이는 거미줄은 관찰자가 작품 속으로 빨려 들어가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감정을 흡수당하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그의 작품은 메시지 전달의 목적성을 내포한 것이 아닌 관찰하는 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심리적 불안감, 초조함, 우울함 등의 심리적 잠재력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지슬라브 백진스키는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의 일상은 같지만, 그 삶 속에 살아가는 개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안한 감정과 긴장의 차이로 존재하여 기분장애를 겪었을 때의 존재를 직면한다는 본인의 주장과 일치된 부분이 있다.

이처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기분장애의 시작점은 사회의 틀 안에서 사람들이 비슷한 맥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 또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과 일정한 행동 영역의 공간 속에서 성장하고 지각하고 학습하는, 습관의 행동적 기억에서 벗어났을 때 어긋남과 소속되어 있지 못하다는 불안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의 차이에서 기분장애의 정도가 나타나는 것은 상황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지각에 불리일으키는 것은 정서적 차이이다. 정서적 차이는 개인의 특성과 지속적인 특성을 갖춘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잡하게 작용하여 심리구조나, 환경과 행동 조절에서 나타남에 따라 어그러지거나 틀어지면 거부반응으로 인해 나타난다.

사회 속 삶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감정의 차이로 인해 나오는 거부반응, 즉 심리적 거부반응으로 인한 기분장애의 표출된 인물 혹은 작품을 직면하

는 것은 그 고유의 시간과 공간으로 끌어들인다. 본인의 [작품 2]에서는 앞서 언급한 시간과 공간을 끌어당기는 매개체는 우울함과 불안한 감정을 장악하는 푸른 색감으로서 눈동자로 시선을 마주 보게 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밀도 높은 묘사력은 오직 이목구비에 집중하고, 그 외의 머리카락들은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방향성을 띤다. 이는 우울함과 부정적인 감정이 작품 밖으로 뻗어 나가 일상생활 속의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 것이며, 시작점은 이목구비, 즉 눈동자를 통해 인물의 전체적인 우울한 감정과 스산하고 차가운 정서의 분위기에 마주하게 한 것이다. 초점 없이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하나, 관찰자가 어느 방향에 있든 마주하게 되는 눈동자는 일상생활의 감정과 정서를 공유하게 되며 작품 관람이 종료된 후에도 여운으로 남겨 본인만의 시간과 공간에 시나브로 젖게 하고자 한 것이다.



[작품 2] <Self-portrait>, 145×112.1cm, oil on canvas, 2016

2. 조형적 측면

1) 간접성과 직접성의 개입을 통한 상처표현



[작품 3] <Self-portrait>, 70Ⅱ, print/embroidery on canvas, 2016

본인의 작업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본인만의 일상적이고 조용한 공간인 집에서 카메라를 나를 향해 찍는다. 촬영된 사진 이미지를 컴퓨터를 통해 보정하여 흑백 이미지로 변환한다. 그 이후에 전사 과정을 거친다. 인쇄물이 준비되면 캔버스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젤 미디움을 붓으로 펴 바른다. 그 후 인쇄물의 이미지를 정확한 위치에 올린 뒤 바렌(원목 문지르개)으로 문지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종이를 벗겨내면 젤 미디움은 투명하게 되고 이미지는 캔버스에 옮겨지게 된다. 처음 의도는 캔버스에 인쇄물의 이미지가 사진처럼 고스란히 옮겨지기 바랐지만, 젤 미디움이 마르는 시간에 따라 이미지가 옮겨지지 않거나 찢어지면서 손상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젤 미디움을 고르지 않게 바르며 어느 부분은 더욱 두텁게, 어느 부분은 얇게 펴 바르기도 하였지만, 효과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어느 정도의 접착성이 남아있어 인쇄물 종이가 축축해지면 전사가 잘 될 것으로 예상하여 젤 미디움이 덜 마른 상태로 인쇄물의 종이를 벗겨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20분씩 시간의 간격을 정해놓고 이미지를 벗겨내는 연구를 통해 결국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었다. 어느 정도의 접착성이 남아있어 인쇄물 종이가 축축해지면 전사가 잘 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얇게 펴 바르던, 두텁게 펴 바르던 젤 미디움이 완전히 마른 후 인쇄물의 종이를 떼어내야 한다. 인쇄물의 종이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일반 분무기로 분사해 어느 정도의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지우개로 문질러 벗겨낸다.

시너로 적셔 프레스기 위에 올려 찍어내는 전사의 방법과는 달리 젤 미디움으로 찍어내는 전사 방법의 차이점은 젤 미디움을 펴 발랐던 두께와 인쇄물의 종이의 두께가 합쳐져 완전한 평면이 아닌 두께감을 줌으로써 조금 더 회화적인 부분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화의 특징인 복수의 원본을 생산하는 일반적인 에디션(edition) 제작은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인의 처음 의도는 캔버스에 인쇄물의 이미지가 사진처럼 고스란히 옮겨지는 것이었지만 본인의 손힘과 수분을 머금고 있는 종이로 인해 고스란히 전사된 사진 이미지의 구현은 어려웠다.

원하는 만큼의 온전한 이미지로 전사가 되지 않아 작업실 한쪽에 쌓아 놓던 연구작업물을 바라보았을 때 깊어지는 우울감, 불안한 정서가 문득 지우개를 문지르는 본인의 힘 조절에 따라 구현되는 손상도가 기분장애를 시각적, 조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우연적 발상은 곧 손상도가 기분장애를 표출한 작업의 핵심 키워드인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상도로 인해 작품이 산만해지지 않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위해 온전한 인쇄물의 이미지보다는 손상의 강약 조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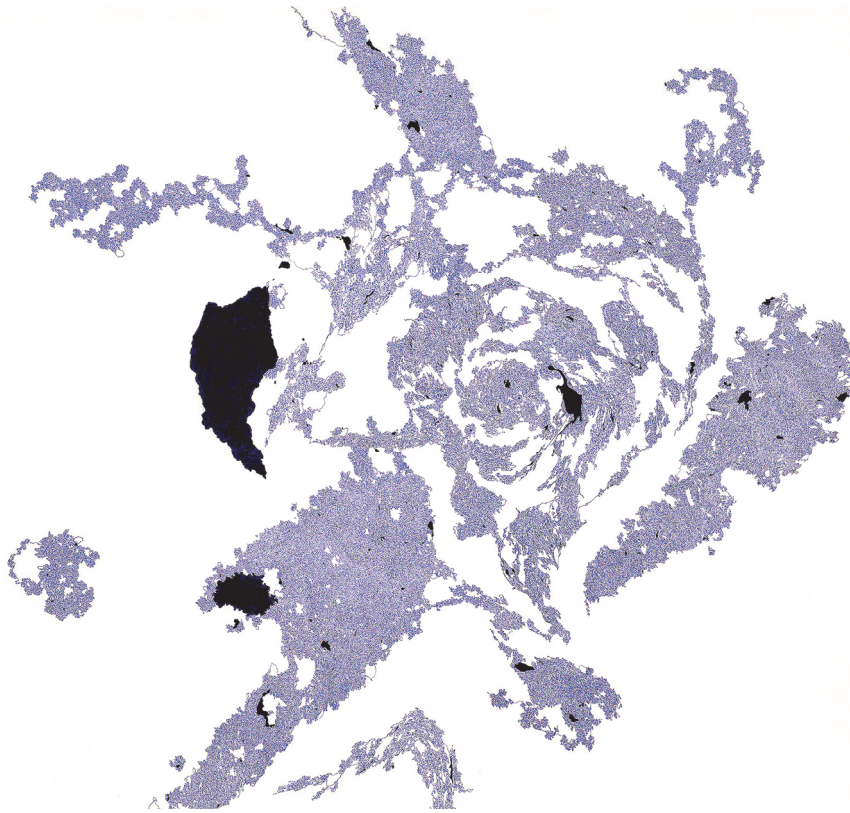
[참고 도판 3] 작품 3의 부분

추후의 작업인 자수의 기하학적인 패턴을 고려하여 자수가 집중적으로 분포된 부분은 인쇄물의 이미지가 온전하게 전사되고, 인쇄물의 이미지만 있는 곳은 더 거칠게 손상시켜 조형적으로 조화롭게 배치하였다. 방사형 모양은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촘촘할수록 기하학적인 패턴이 잘 드러난다. 아주 얇은 실은 오히려 배경 이미지에 묻혀 색이 보이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 굵기가 있되 선명한 파란색으로 작업한다. 컴퍼스(compass)로 캔버스 안에 손상되지 않은 이미지 부분을 위주로 크고 작은 원을 배치한다. 그 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점을 찍는다. 자수 실의 굵기를 고려하여 2~3mm 사이의 점을 표시한다. 방사형의 특성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므로 바깥쪽 원의 점 개수가 안쪽 원의 점의 개수보다 많으므로 바깥쪽 원의 점의 자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반복하여 자수를 놓는다. 점과 점 사이에 자수를 놓을 때 느슨하게 하지 않고 팽팽하게 조임으로써 캔버스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생긴다. 이는 조명을 비추게 되면 그림자가 생기면서 더욱 입체적으로 된다. 캔버스와 덮어지는 이미지 역시 평면이지만 자수를 놓음으로써 생기는 입체감은 작품의 소소한 시각적 재미를 준다. 그러므로 우울감을 입체적으로 표출된 것은 푸른색 자수이므로 이는 기분장애의 불안한 감정과 외부환경을 통해 얻은 상처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에도 매우 적합했다.

2) 선드로잉을 통한 내면의 깊이 표현

본인은 매 순간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울한 감정을 떨쳐버리려 무의식적으로 노력했지만 누적된 감정의 깊이감을 매듭짓기에는 한계를 느꼈다. 회복의 결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장애를 앓고 있다는 인정을 통해 인지적 측면에 집중하여 평면에서 감정의 깊이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복잡한 감정을 분명한 형태로 형상화하기는 어려워 종이 위에 선드로

잉으로 형상이 불분명하게, 마치 낙서처럼 구성하였다. 선드로잉은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감성을 표출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매체이다. 선의 속도, 강약 조절, 리듬감을 통해 때로는 자유로운 곡선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때로는 분명한 직선을 통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인 스스로의 우울증과 부정적인 감정, 불안한 정서를 직면시키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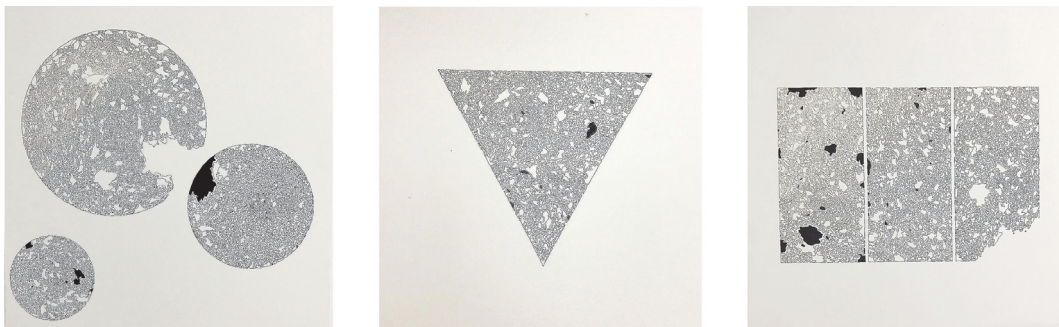


[작품 4] <푸른, 감정에 잠식되다>, 788×1090cm, pen on paper, 2018

본인의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푸른색 선 드로잉은 내면의 기분장애에서 나타난 끄적거림부터 시작되어 진다.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가 내포된 선드로잉은 불안한 감정의 시작점이 나선형으로 번져감에 따라 시각적으로 확장

되어 표출된다. 이 속에서 우울한 감정은 늘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존재하며 단순한 곡선들이 어지러운 미로처럼 끊임없이 종이 위에 표현된다. 위 감정의 응집, 축적은 엉키고 엉켜 아주 짙은 점이 되어 평면의 깊이감을 주고 감정이입을 극대화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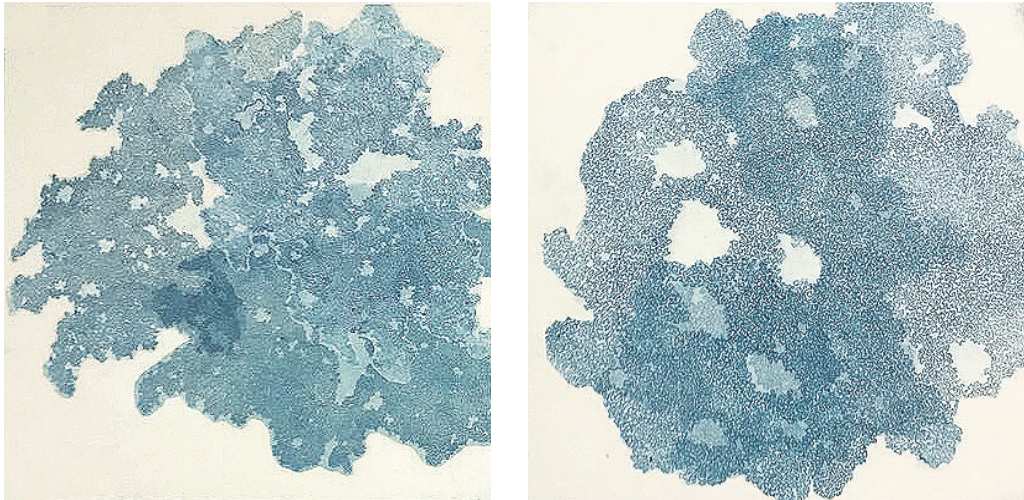
이를 프로이트의 주장에 적용한다면, 6)프로이트의 성격에 관한 정신분석 개념의 근원에는 인간의 마음은 빙산의 일각과 같다는 신념이었다. 즉 대부분 마음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각하고 있는 우리의 인식은 수면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부분이고, 주로 수면 아래는 생각, 희망, 느낌, 기억을 포함하고 있는 무의식 부분이며, 매우 거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 의식의 일부는 지각하고 있는 인식에서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을 일시적으로 전의식영역에 저장한다. 또 그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억누르는 걱정과 생각의 덩어리였고, 억누른 것은 그 같은 아픔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을 강력하게 막는다. 우리가 불안한 느낌과 관념을 의식하여 알아차리지 못한다 해도 불안은 우리에게 강한 영향을 끼친다고 믿었다. 그의 견해에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던 충동은 감추어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점에서 무의식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서서히 확산된다.



[작품 5] <푸른, 감정에 잠식되다>, 30×30cm, pen on paper, 2019

6) 이재창, 정영윤, 구본권, 손진훈, 김정기, 박승호 지음, 위의 책, p365

이 우울증의 시각적 형태는 불규칙적이고 비정형적인 형태이다. 앞선 [작품 1]의 푸른색 기하학적인 방사형 패턴과는 다르게 [작품 5]의 선드로잉의 도형들은 치유가 아닌 우울한 감정을 내비치는 직면성을 의미한다. [작품 5]에서의 도형들은 각 구성 안에서 1개, 혹은 3개로서 짝수가 아닌 홀수로 배치시켰다. 이는 홀수에서 오는 외로움, 불안정한 감정이 내포되어 있으며 완벽한 도형이 안정감과 편안한 시각적 효과를 준다면, 한쪽 모서리가 깨지거나 완전하지 않은 형태에서의 선드로잉은 불안감과 비정상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작품 6] <푸른, 감정에 잠식되다>, 30×30cm, etching, 2019

연필, 혹은 펜으로 그린 선드로잉의 7)회화적 요소는 직접 이미지를 표현하는 직접성의 예술이라고 한다면, 판화는 판 위에凹凸(요철)의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에 잉크나 물감을 묻혀 찍어내는 ‘간접성’의 예술이다.

7) 한국현대판화가협회, 국립현대미술관 발행 「한국현대판화의 담론과 현장 1958-2008」, 서울 문화인쇄. p236

본인은 전통판화에서 회화가 가지고 있는 직접성 예술 중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요소를 참고하고 에칭(etching)을 이용하여 화면을 구성시켰다. 선드로잉 자료를 수집하여 판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활용한다. 기법적으로 에칭은 니들(needle)로 깊이감을 조절하여 선드로잉을 하는 것으로 1차적 공간성을 주었다. 부분적으로 깊이감을 주기 위해 부식을 할 경우와 부분적으로 깊이감을 얇게 하여 상대적으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혹은 깊이감을 길게 한 선드로잉 판부터 점차 얇게 한 판들을 순차적으로 여러 개 만들어놓았다. 이 부식과정은 평면 속 공간감을 느끼는 역할도 하지만 본인에게 우울한 감정이 스며드는 외부적 역할로도 본다. 판에 니들로 긁는 것은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 상처받은 것, 부식은 그로 인해 우울함이 스며들어와 상처 입는 것을 말한다. 이 부식은 판에 한 번 손상이 되면 다시 고쳐질 수가 없는데 이는 사람과 비슷하다. 내면의 상처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그 이유다.

부식 다음 순서인 잉킹(inking)은 깊이감을 길게 하여 부식을 오래 한 판에는 짙고 어두운 푸른색으로 잉킹하였다. 아주 얇은 한지에 잉킹을 하여 여러 장 찍어냈다. 점차 얇게 한 판들의 인쇄일수록 선명하고 명도와 채도가 높은 푸른색을 잉킹한다. 따라서 결과물을 찍을 때마다 선드로잉의 깊이와 부식의 차이, 색감의 조절로 공간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캔버스 위에 밀가루 풀을 발라 인쇄된 종이들을 순차적으로 배치한다. [작품 6]에서 보이는 공간의 깊이감은 이러한 방식에서 형성된 작품이다. 단순한 깊이감이 아닌 우울증에 관한 깊이감, 불안한 정서의 조형적 조화로움, 리듬감 등 오버랩(overlap)된 이미지들은 하나의 '나'로서 형성된 것이다.

3) 푸른색에 대한 감정의 시각화

본인이 생각하기에 색은 내면 심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고유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색과 내면 심리의 관계는 개인의 감정에 있어 자유성과 직접성, 고유성을 표출된다고 생각되며 언어로서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시사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수많은 감정만큼이나 자유롭게 표현되고 무의식적으로 가장 먼저 인지되는 수단이며 개인의 감정으로 인한 색채의 심리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여긴다.

색채의 감정은 색채가 주는 심리적 효과로 사람의 주관에 따라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색채의 추상적 연상으로 외부환경에 의한 개인적인 경험, 기억, 사상이 이에 해당되며 어느 정도 현대사회에서 규정된 보편성을 지닌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작품에 표현된 색채는 시각적 기능을 작가의 의도에 내포하여 관람자가 공감하기 위한 시각적 경험을 유도할 것이다.

미술사에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는 이러한 색채의 심리적 기능을 잘 표현한 대표적인 작가이다. 피카소는 인생의 역사에 다양한 색을 입힘으로써 개인의 역사를 시각화시켰다. 그 중 청색시대는 외부환경의 트라우마, 불안하고 부정적 감정 심리로 표현된다. 흔히 피카소의 ‘청색시대(1901-1904)’라 불리는 이 시기는 외부적 환경에 의한 우울함이 그를 뒤덮어 버리기 시작하면서 도래되었다. 절친한 친구 카를로스 카사게마스의 자살과 빈민가 사람들의 빈곤과 질병이 가득한 그늘진 인생, 스페인의 암울한 현실 등 피카소는 푸른색 안경을 쓰듯 우울함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피카소에게는 새벽의 어스름한 하늘, 정오의 햇빛, 노을 지는 풍경 모두 푸른색의 본질에 불과하다. 사물과 사람은 모두 푸른색을 통해 감정의 진실과 순수함의 형태를 가진다. 연민의 감정, 현실 속 고독, 삶과 죽음의 경계선 등은 모두 감정의 푸른빛에 스며 나오는 것이라 느

껴진다.

색 중의 색은 청색이라 했던 그는 작품 속 색채에 우연히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푸른색은 영혼의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특징이 있으며, 차가운 감성의 스펙트럼에 속해있는 푸른색은 그 고요함과 스산함이 곧 그 자체인 것이다.



[참고 도판 4] <Pablo Picasso>, 81×60cm, oil on canvas,
The Picasso museum in Barcelona, 1901

[참고 도판 4]는 카를로스 카사게마스의 자살 직후 그린 초상화작품으로 푸른색이 그의 마음을 시각화한다. 인물의 슬픔, 절망, 이별, 우울감은 검정보다 더 짙은 푸른색 눈동자에 스며있고, 힘없이 반쯤 풀린 이목구비와 배경은 나머지 부분들의 조형적 생략에 따라 더욱 강조된다. 피카소는 눈을 통한 공감의 시각화를 강조하면서 눈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느끼는 외부적 환경요인은 그저 허구에 불과하다는 상실감과 공허함을 말한다.

본인과 피카소의 우울한 감정의 매개체로서 차이점이 있다면 본인에게 있어서 눈은 시간과 공간을 끌어당기는 매개체로 우울함과 불안한 감정을 장악하는 푸른 색감은 눈동자로 시선을 마주 보게 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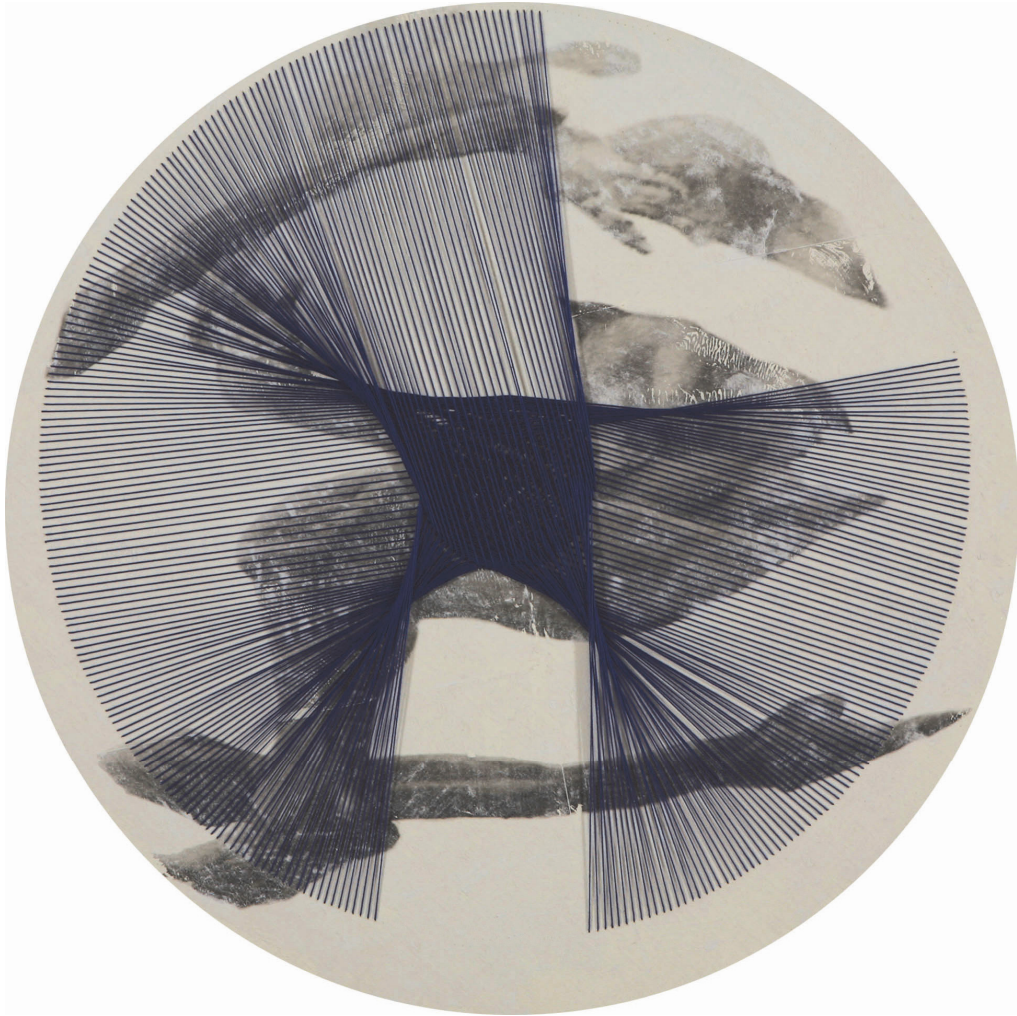
[참고 도판 5] <푸른, 감정에 잠식되다> 展 습작의 일부, 2019

본인에게 우울증이 극에 달았던 시기였던 2017년의 여름. 당시 반복되는 일상의 시간과 공간에서 안정감은 온전히 손에 쥐어지지 않는 느낌이었다.

외부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불안감과 공포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은 유리 발판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고, 우울증을 벗어나고자 했던 노력은 하면 할 수록 늪에 빠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직면하고 인정하여 작품에 푸른색으로 시각화했을 때 비로소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

3. 작품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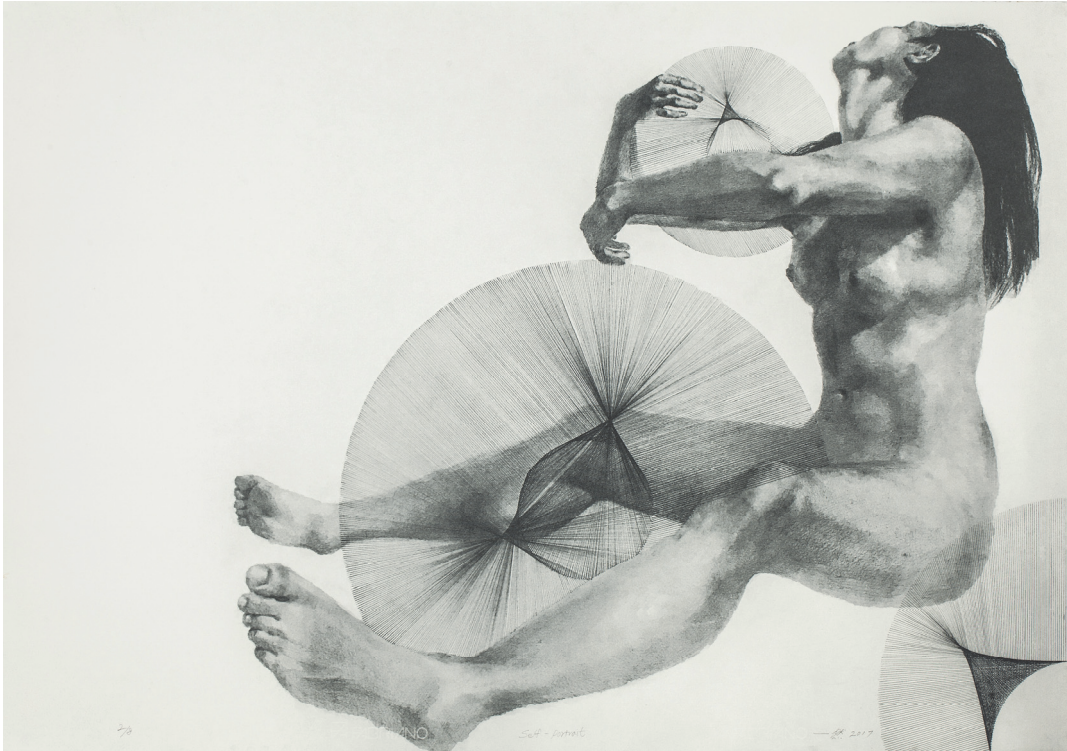
본인은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작업은 회화적 요소를 가미한 판화의 기법과 선드로잉, 그리고 푸른색에 집중한 표현성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는 판화기법 중 전사와 석판화를 활용한 [작품 7] ~ [작품 8]이다. 전사와 석판화 작품은 본인이 외부적 환경에 의하여 우울증을 앓았을 때 내면의 상처를 푸른 자수나 드로잉을 통해 치유하고자 기하학적 패턴을 시작하게 된 첫 작품이다. 두 번째 [작품 9] ~ [작품 10]은 반복적인 시간과 공간에 짜여진 계획에 안정감을 느껴야 하는 강박증 혹은 기분장애를 표현하고자 선드로잉과 에칭작업을 하였다. 오직 무의식의 순수한 감정(우울증)에 집중하여 의식적으로 선드로잉을 나타냈으며, 이를 판화로 옮겨 조형적으로 평면 공간에 깊이감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작품 11] ~ [작품 12]는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 차가운 정서를 색으로 시각화하여 내면의 직관성을 직면하고자 했다.



[작품 7] <Self-portrait>, 70Ⅱ, print/embroidery on canvas, 2016

본인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우울한 감정이 온몸을 장악한 듯 오직 내면의 감정에 집중하였다. 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외부적 변수로 인해 우울한 감정은 점차 방사형처럼 퍼져나간다. 위의 [작품 7]은 겔 미디어로 찍어내는 전사기법으로 이미지는 형체가 불분명하거나, 덩어리처럼 응집된 인체로서 [작품 3]과 연결되는 자아 이미지이다. 푸른색 자수는 원형 캔버스 안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미지를 대부분 덮어버린다. 이 기하학적인 패

턴의 방사형 자수는 외부적 환경으로 인한 우울증,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과 동시에 상처가 덧나듯 푸른 감정의 우울증이 퍼져나가 감염되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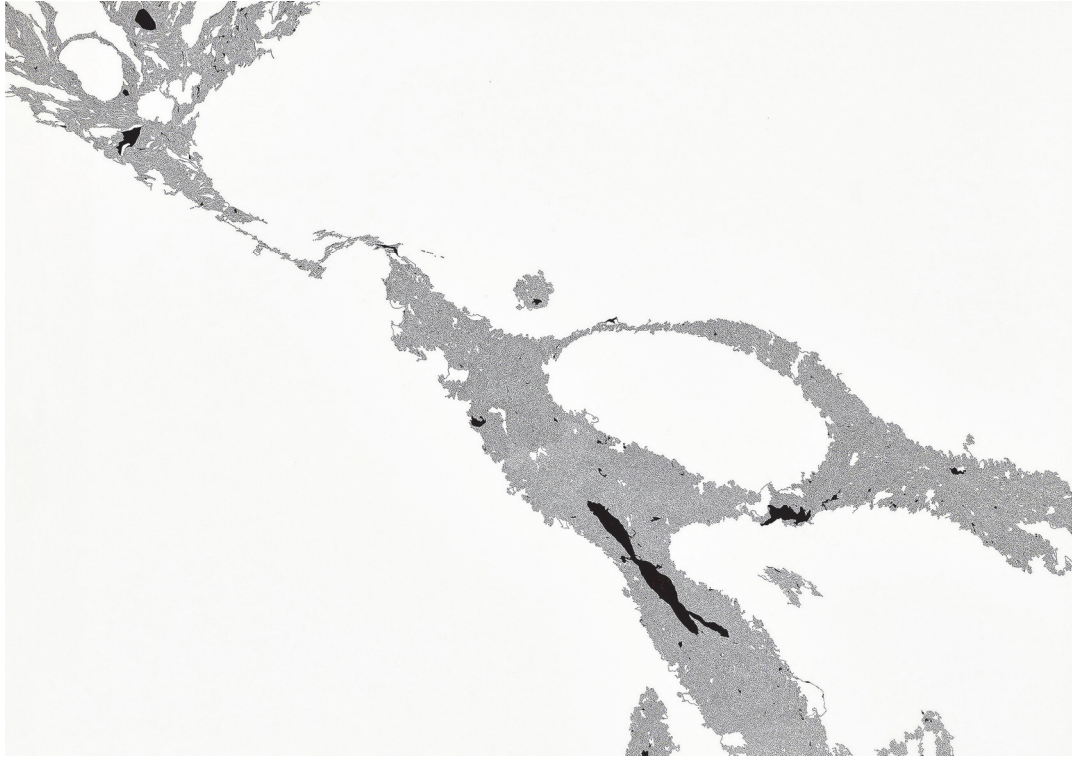
[작품 8] <Self-portrait>, 116.8×91cm, lithograph, 2017

본인은 인물화에 애착을 가질 정도로 모든 작업은 인물을 기본으로 구성을 한다. 일상 속 오고 가는 관계, 스쳐 지나갈 정도의 가벼운 관계.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관계를 맺는 인물들이 각각 살아가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흥미로운 주제였다. 같은 시간과 다른 공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겪는 감정, 시선, 심리들을 들으면서 인물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관찰하여 작업한다.

[작품 8]은 본인과 같이 1년여간 생활을 하던 친구를 모티브(Motive)로 한

작품이다. 본인과는 다른 본질의 기분장애를 겪는 친구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처를 직면하며 치유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보며 비단 우울증을 겪는 것은 본인만이 아닌 아주 흔한 일이고 유난스러운 것이 아니란 것과 누구나 정도의 차이를 가질 뿐임을 직시하였다.

석판화(lithograph)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소묘를 우선으로 작업을 하였다. 특정 인물을 명시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 얼굴을 젖힌 구도로 본인들만의 우울증을 껴안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부드러운 몸보다는 심리적으로 경직되어 있고 긴장감을 위해 빛의 대비(contrast)를 강하게 주었다. 우울증을 표현한 기하학적인 방사형 패턴은 손과 발 안에 세밀한 간격을 두고 0.38cm의 아주 얇은 펜으로 그렸다. 판 제작 후 잉크를 입히기 전에 물과 해면을 준비한다. 해면에 물을 적시고 최대한 짜낸 후 판 표면에 물기를 발라준다. 석판 전용 검은색 잉크와 파란색 잉크를 2 : 8 비율로 섞어 롤러(Roller)에 끌고루 묻히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잉킹을 해준다. 잉킹을 할 때는 한 방향이 아닌 위아래 사선으로 각도를 바꾸면서 잉킹을 해야 한다. 기하학적인 패턴은 매우 얇은 선드로잉이기 때문에 뭉개지지 않도록 해면과 잉킹의 조절을 세밀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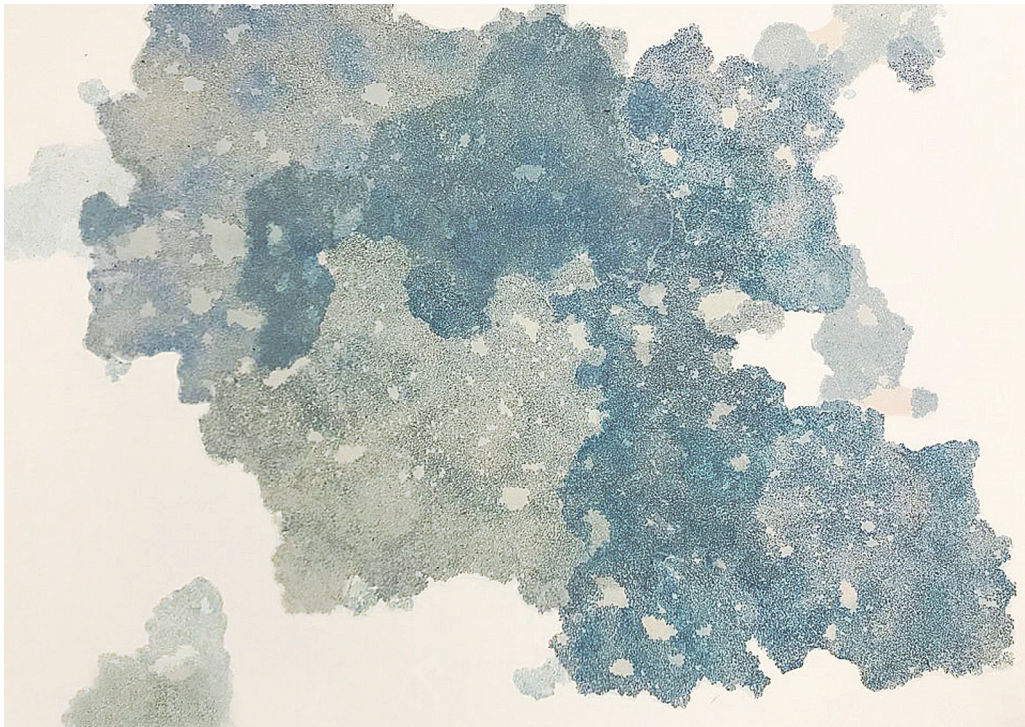


[작품 9] <푸른, 감정에 잠식되다>, 788×1090cm, pen on paper, 2018

[작품 9]는 ‘푸른, 감정에 잠식되다 展’의 첫 번째 제작된 작품이다. 점과 선이 확장되어 면까지의 조형적 요소를 갖춘 이 작품은 본인의 우울증 전개도와 같다. 선드로잉의 시발점으로, 이전 습작들은 엉키고 엉킨 우울증의 감정이 낙서처럼 표현되다 비로소 조형적인 형태가 갖춰져 나온 것이다. 시작점은 왼쪽 상단으로 밀집도가 성기고 선의 조화도 비교적 날카롭다. 또 선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 선으로만 그린 것처럼 보인다. 시선이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선들이 응집되어 우울증의 감정이 고조됨을 표현했다. 선드로잉 작업을 할 때는 오직 내면의 감정에 집중하며 집중하면 할수록 우울증이 심화됨을 느꼈다. 어느 부분에서는 도저히 손을 움직일 수도 없이 감정의 버거움

을 느껴 펜을 내려놓을 때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우울증을 직시하는 그 자체에 의의를 느끼며 작업을 진행했다.

‘푸른, 감정에 잠식되다 展’에서의 대부분 관람자는 이 작품에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다. 이는 작품의 이미지가 주는 선의 세밀함과 본인이 오직 내면의 감정 하나 만에 집중하여 그린 선드로잉에 공감을 형성했음을 판단한다.



[작품 10] <푸른, 감정에 잠식되다>, 116.8×91cm, engraving, 2018

[작품 10]은 동판에 선드로잉을 통해 우울증을 구현하면서 부식의 깊이감으로 인해 감정은 선명하게 표출된다. 얇은 종이의 덧댐으로 또 다른 감정과 중첩되고 깊이감이 형성되어 평면 위 공간감이 나타난다. 이는 단순히 종이 위의 선드로잉만으로는 감정의 깊이감, 공간감 형성은 어려워 동판 작업을 시도한 것이다. 동판의 중첩은 판화의 특징인 복수성을 활용한 것이고, 니들로 깊

고 굵게 제작한 판과 점차 얇고 세밀하게 제작한 판들로 우울증에 관한 깊이감, 불안한 정서의 조형적 조화로움, 리듬감 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작품을 본 한 관람자는 “내면의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어 눈물 자국처럼 보인다”라는 평을 남겼다. 이 관람자는 본인과 전혀 연관이 없던 제3의 인물로 우연히 ‘푸른, 감정에 잠식되다 展’을 보고 남긴 것이다. 본인의 우울함, 부정적인 감정 등 반복적인 일상생활 속 상처받은 나를 위로해준 감상평이었다.



[작품 11] <푸른, 감정에 잠식되다>, 116.8×91cm,
digital image/ink-jet print, 2019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 차가운 정서를 색으로 시각화하여 내면의 직관성을 직면하고자 한 [작품 11]은 [작품 4]의 선드로잉을 일부 참고해 만들었다. 앞선 작품들은 회화적인 느낌을 고수하고, 판화의 복수성을 활용하여 작업을 풀

어나갔다면, 디지털 미디어(Digital media)를 오리지널 판화(Original Print)를 결합하여 확장된 개념의 새로운 전개에 의의를 두고 시도하였다.

판화의 특징인 간접성은 8)매개체인 ‘판’의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매우 다양한 실험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 간접성의 영역은 실제로 현대미술에 있어서 테크놀로지(Technology)와의 결합에 의한 매체의 확대 즉 다양한 시각 매체의 결합으로 인해 확산된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가 주는 색감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색감과 확연히 다르다. 본인이 조색한 색은 생동감이 느껴지는 우울감의 푸른색이라면 [작품 11]에 나타나는 색은 오히려 감정이 배제된 색감으로 파랗기만 하다. 감정이 배제되어 드러난 색감은 모니터(제3자)의 시선으로 객관화되어 차가운 느낌이 강조된다. 선드로잉보다 색의 배치 영역을 넓게 잡음으로서 선드로잉은 색감의 부수적인 요소로 색감이 더 드러나고자 의도한 것이다.

8) 한국현대판화가협회, 국립현대미술관 발행, 위의 책. p235



[작품 12] <푸른, 감정에 잠식되다>, 116.8×91cm, print ink on canvas, 2019

마지막으로 [작품 12]는 ‘푸른, 감정에 잠식되다 展’의 마지막 작품이다. 본인의 감정이 넘쳐 흐르듯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물감의 입체화를 위해 파란색 판화 잉크와 잉크 미디움(Ink medium)을 섞어 아주 무거운 느낌으로 만들었

고, 캔버스 위에 부어 롤러로 고르게 폈다. 일부분에는 캔버스를 세워 물감이 흐르게 하여 감정의 고조를 강조하고자 했다. [작품 12]의 쓰인 색감은 우울증이 색으로 표현된다면 이런 색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의 우울증을 표현하기에 더없이 맞는 색이다. 푸른빛이 감도는 어두운색, 시각적으로도 무겁고 점성 있어 보이는 질감은 본인도 모르게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잊는다. 잉크 미디움의 뭉고 광택이 나는 성질 때문에 관람자가 가까이 다가가면 실루엣이 작품에 반사된다. 이는 캔버스 크기도 상반신 정도 크기의 거울이 연상되고 관람자의 실루엣은 푸른색의 감정에 잠식됨을 의도한다.

Ⅲ. 결 론

본인은 일상생활에서의 안정감에 의지하고 있는 외부상황에서 환경적 상실, 배척, 혹은 거부의 느낌, 소외가 감정과 정서에 스며들어올 때, 스스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다가와 불안과 위협이 되어 기분장애를 앓게 된다는 것을 주목하여 작업으로 표출하였다. 2019년 석사학위 청구 전 <푸른, 감정에 잠식되다>에서 전시된 작업을 본 논문 “기분장애에서 표출되는 우울증의 작품분석 연구”를 통해 본인이 우울증을 겪은 경험과 직시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서술하고 그 외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우울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9)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요인을 접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을 말하는데, 모두에게나 우울한 상태를 경험한다. 본인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의 손상을 입어 스트레스를 느낄 때 우울을 경험함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우울을 받아들이고 직시함을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각자의 주관적인 경험, 감정을 본인의 작품에 의해 공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기를 예상한다.

제작과정에서 본인은 선드로잉과 판화, 디지털 매체를 함께 사용하였다. 선드로잉은 복잡한 감정을 분명한 형태로 형상화하여 무의식적 감정을 의식적으로 표출하고자 할 수 있었다. 또한, 기하학적인 패턴과 자수를 활용하여 본인이 의도하였던 우울증과 불안한 감정이 퍼져나가는 것을 시각의 표현 연구에 접근되었다고 생각한다.

판화에서 회화가 가지고 있는 직접성 예술 중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요소와 복수성을 이용하여 우울증의 깊이감을 표현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판화와 새로운 감정을 직시하는 시각 매체의 결합으로 인해 작업 주제를 확장해 나갈

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수 있었다.

본인의 작품, 우울증은 누구나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불특정 인물들을 말한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정한 시간과 행동의 공간 안에서 자신조차 알아채기 어렵고 안정감과 거리가 멀어짐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감정의 객관화가 될 수 있다. 본인은 그 순간이 작업의 출발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우울한 감정과 인식이 배제와 치유의 대상이 아닌, 감정의 깊이감을 인지적, 시각적으로 공감하여 평면으로 표출한 작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국립특수교육원(2009)

강태동 「'색' 당신을 말한다」, 신성출판사, 201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박혜주 「지슬라브 백진스키 작품을 응용한 그로테스크 아트메이크업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이재창, 정영윤, 구본권, 손진훈, 김정기, 박승호 지음 「인간이해를 위한 심리학」, 문음사, 1995.

[한국현대판화가협회, 국립현대미술관 발행 「한국현대판화의 담론과 현장 1958-2008」, 서울문화인쇄, 2007.

하워드 선, 도로시 선 「내 삶에 색을 입히자 색채심리와 색채치료」, 나선속, 도서출판 예경, 2003.

카시아 세인트 클레어 「컬러의 말 - 모든 색에는 이름이 있다」, 이용재, 율북, 2018.

ABSTRACT

Visualization Study of Depression Expressed from Mood Disorder

- Focused on my works -

Kim, Ji Su
Departmen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is about studying works of depression, expressed by mood disorder in a way of formative development process, based on self work exhibited in 2019 Master's Degree Exhibition <Blue, Devoured by emotions>.

We all live in same time and space given equally to everyone, with various emotions and feelings. In this circumstances, the mosaic of deep feelings and blue feelings starts in a quick and simple way like dropping an ink in a water. If we are filled with this confusion and couldn't skim off, mood disorder develops in us.

This is not like a pitch black that couldn't even feel despair, but very deep blue swamp, suffocating, only dim sign of exit waving at us. Microscopic experience of this kind of mood disorder is expressed in

formative work.

In working process, I used line drawing, prints, and digital media together. Line drawing can consciously express subconscious feeling by forming complex feelings into clear feelings. Also I intentionally approached visual expression research using geometrical pattern and needlework expressed by depression and spreading nervous emotion.

In prints, I can express depth of depression using immediate factor -plurality, time and space- that Fine Arts has. By combining of traditional prints and visual media that confronts new feeling, I can expand my work subject.

My art's subject is about depression that unspecified persons suffer in daily life. When we realize we are separating from stability in our daily repeated same life, then we can objectify our feelings. Therefore, I propose this moment to be the start line of my work.

Furthermore, by starting this research, I hope naturally expressed deep emotion is not to be objected or not to be cured, but to cognitively, and visually be sympathized its depth, and be expressed on flat surface.